“스포츠 레거시 통합 활용방안 찾아야”

배미경 호남대 초빙교수 광주시의회 토론회서 주장

“스포츠 선도도시 입지 강화 전략도 필요”

국제적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한 광주의 인프라와 노하우 등 축적된 유·무형 자산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02년 월드컵, 2015광주유니버시아드,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 선수권 대회를 개최한 광주의 역량을 지역 성장동력으로 끌어올려야한다는 게 골자다. 이른바 스포츠 레거시(Legacy·유산) 사업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국제스포츠 전문가인 배미경 호남대 신방과 초빙 교수는 지난 26일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열린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평가 및 지속 가능한 대회 유산 활용 토론회’ 주제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행사는 광주시의회가 주최하고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관했다.

배 교수는 ‘지속 가능한 아시아 스포츠도시 광주전략’ 주제 발표에서 “지난 17년 동안 굵직한 국제 스포츠 대회를 유치하고 개최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에 축적된 유무형의 자산을 통합적인 시각에서 활용하는 통합레거시적 관점이 중요하다”며 “1조원 상당의 투자금을 어떻게 광주의 새로운 성장의 동력으로 환원할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하는 ‘투자금 환수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배 교수는 위상 높아진 광주의 브랜드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3차례 국제대회를 치르면서 광주의 국제스포츠도시 위상이 세계 27위, 아시아 6위까지 상승했다”며 “아시아 스포츠 선도도시 입지를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략적으로는 세계의 스포츠밸리로 성장한 스위스 로잔의 모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배 교수는 설명했다.

배 교수는 “현재 2019세계수영대회의 대표 레거시로 논의 중인 수영진흥센터와 관련, 적어도 아시아 수영메카를 꿈꾸는 큰 비전 속에서 지역사회에서부터 아시아를 아우를 수 있는 운영전략을 고민해야 한다”며 “대한수영연맹을 비롯한 아시아 대륙 연맹을 광주로 유치하여 스포츠마이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콘트롤 타워 역할까지 염두에 둔다면 광주가 아시아스포츠밸리로 부상할 수 있지 않겠냐”고 거듭 강조했다. 지속가능한 레거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배미경 교수

2019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특별지원위원회 김용집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특위 소속 시의원과 각계 분야의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배미경 교수는 2015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홍보, 마케팅, 국제관계를 총괄하여 체육훈장백마장을 받았다. KOC(대한올림픽위원회)의 국제위원으로도 활동했다. 2019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위원회 마케팅 팀장, 유치팀 일원으로 참여한 스포츠 마케팅 전문가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숨은 영웅 이야기’ 책자 들고 기념촬영 28일 오후 광주시 서구 화정동 청소년수련원에서 열린 ‘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에서 이용섭 광주시장, 송갑석 국회의원과 5개구에서 선정된 숨은 영웅 50인 등 참석자들이 ‘숨은 영웅 50인의 나눔과 실천 이야기’를 담은 책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노사민정 공동 노동인권회관 건립

200억 들여 남구 도시첨단산단에

광주시가 노사민정 공동으로 노동인권회관을 건립한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노사 상생도시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남구 지석동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노동인권회관 건립을 추진한다. 노동인권회관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6876㎡로 예정됐다. 사업비 200억5500만원은 전액 시비로 한다. 부지 매입비 11억원, 건축비 164억원, 설계비 8억원, 감리비 12억원, 부대비 5억원 등이다.

노동인권 역사를 전시할 전시관과 자료실, 노사상생 교육 공간으로 쓰일 강당과 회의실·사무실, 노동자 복지와 편의를 책임질 체육·문화·교육 등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선다.

광주시는 지난 6월 노동인권회관 건립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광주시도시공사를 통해 도시첨단산단 내 대상 토지의 분양을 유보하도록 했다. 다음달로 예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에 이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제출(10~12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10월) 등을 거쳐 내년 2월 착공, 2022년 2월 개소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29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노사민정 관계자들이 참석해 ‘노사 상생도시 실현을 위한 노동인권회관 건립 협약식’을 개최한다. 협약식에는 이용섭 시장을 비롯해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 윤영현 광주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등 노사민정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김형호 기자 khh@

“범죄 경력·비전문가 박광태 대표 사퇴하라”

광주시의회, 광주글로벌모터스 대표 선임 반대 성명

정의당도 선임 철회 요구

박광태 전 광주시장의 (주)광주글로벌모터스 대표이사 선임 논란이 이어지면서 광주시의회가 박 전 시장의 선임을 반대하는 성명을 내고, 박 시장의 범죄 경력과 비전문성 등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정의당도 “시민사회세력과 함께 박광태 전 시장 선임철회 행동을 즉각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며 박 전 시장의 선임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28일 광주시의회 ‘박광태 초대 대표이사 선임을 반대하는 의원 일동’(반재신·장연주·정무창·신수정)은 “박 전 시장은 전문 경영인으로서 능력과 지방 공기업 임원으로서 자격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며 “시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없는 인사인 만큼 박 전 시장은 당장 사임하고 광주시는 대표이사를 재선임해야 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시의원은 “광주형 일자리 합작법인의 대표이사는 자동차 산업을 충분히 이해하고 국제적 능력과 경력을 겸비한 인물이 맡아야 한다”며 “박 전 시장은 정치인으로서 국회의원, 광주시장을 역임했지만, 자동차 산업의 이해 및 전문 경영의 경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박광태 전 시장은 재임 당시 ‘상품권 깡’ 비리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며 “공직자로서 응당 지켜야할 도덕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박 전 시장의 과거의 전력을 비춰볼 때 광주형 일자리 4대 원칙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노사상생과 사회 대통합에 어울리는 인물로 교체해야만 광주형 일자리가 광주시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출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는 다음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제기되는 우려와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방침이다.

또 이날 정의당 광주시당이 광주형 일자리 합작법인 박광태 대표이사 선임에 대해 재차 철회를 요구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글로벌모터스 박광태 대표이사 선임에 대한 철회 요구에도 이용섭 광주시장은 대표이사 선임 철회의사가 없음을 밝혔다”며 “철회를 요구한 정의당과 참여자치21의 주장을 폄하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이용섭 시장이 광주형 일자리의 4대 원칙에 대한 의지 표명이나, 노사민정 대타협의 정신을 확인한다면 누가 해도 가능한 자리였다”며 “박 전 시장처럼 부패에 얽힌 사람이 아니라, 청렴한 전문 경영인이 대한민국에 많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하루 5000명 이용 남광주역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

‘현장 경청의 날’ 시설 점검

하루 이용객이 5000명에 육박하지만 단 1대의 엘리베이터만 설치된 광주 남광주역사에 엘리베이터가 추가로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28일 남구 학동 남광주역 대합실에서 ‘제9회 현장 경청의 날’을 개최하고 역사와 출구, 편의시설 등을 점검한 뒤 이용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를 포함한 시설 개선을 약속했다. 현장 경청의 날에는 이용섭 시장과 임택 동구청장, 박미정 시의원, 동구의회 의원들, 최영태 시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광주도시철도공사 관계자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시민 50여명이 함께 했다.

이날 현장 경청의 날이 진행된 남광주역은 도시철도 1호선에서 송정역, 금남로4가역에 이어 3번째로 이용 승객이 많은 지하철역으로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남광주시장, 구도심이 인접해 있고 동구와 남구, 화순 등으로 이어지는 사통팔달의 교통 거점이다.

2018년 말 기준 하루 평균 4516명이다. 하지만 많은 이용자에 비해 엘리베이터는 한 대만 설치돼 교통약자 이동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 시장은 시민 의견을 경청한 후 “직접 4번 출구 계단을 올라가보니 몸이 불편하신 분들과 노약자들이 오르내리기 불편해 엘리베이터 설치가 시급하다고 판단된다”며 “관계 기관과 협의해 엘리베이터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남광주역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는 이용섭 시장께서 시민들에게 현장에서 약속한 사안으로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조속히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시, 추석 시민생활안정 종합대책 추진

물가안정·비상진료 등 10개 분야

시민불편 최소화 종합상황실 운영

광주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추석맞이 시민생활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광주시는 소외계층 지원, 물가안정, 체불임금 해소, 교통소통, 성묘객 편의 증진, 안전관리, 비상진료, 환경정비, 급수, 공직기강 확립 등 10개 분야별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우선 93개 복지시설 및 단체에 10만원에서 30만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세대당 10만원을 지원하고, 결식우려 아동 6200여 명에게 도시락 또는 급식제공 지정업소 이용권을 제공한다.

물가안정을 위해 물가대책상황실과 대책반을 운영해 성수품 가격표시 미이행·불공정 거래 지도 등 물가를 관리한다.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단속을 탄력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연휴 기간 각종 재난과 안전 관리를 위해 24시간 재난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한다. 명절 기간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응급진료체계도 가동된다.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등 응급의료기관 25곳이 운영되고, 자치구 5개 보건소는 추석 당일에도 정상 근무한다. 당직 의료기관과 당번 약국도 운영한다. 응급의료기간 현황, LP가스 공급업소현황, 민원서류 발급 안내 등에 대한 정보는 120콜센터, 종합상황실(613-2918), 당직실(613-5500)에서 24시간 안내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수산계 고교와 업무협약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28일 전남 미래 수산인력 양성을 목표로 수산계 고등학교와 공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식에는 오광남 원장과 김성 완도수산고 교장, 박필순 여수해양과학고 교장, 김사현 신안해양과학고 교감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수산계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현장밀착형 기술교육과 향후 진로 등을 협의했으며,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수산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품종별 양식기술 등 현장체험 및 실무교육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28일 1차 수산고교생 실무교육을 시작으로 올해 11월까지 8회에 걸쳐 교육을 추진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